

# “결국 치킨값까지..” 생활물가↑ 서민 고충

### 외식·식품업계 이어 치킨업계 가격 상승...영화 관람료도 올라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을 도 화신으로 생활물가 전반이 오르는 추세를 보이면서 서민들의 고충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외식·식품업계가 잇달아 가격을 올리는 가운데 결국 눈치를 보던 치킨업계마저 가격 올리고 영화 관람료까지 인상 움직임에 힘을 보태면서 물가 상승이 릴레이 하듯 이어지고 있다.

교촌치킨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달 1일부터 전국 가맹점에서 배달 서비스 유료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달 운송비용의 증가로 인해 가맹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2000원의 배달비를 따로 받기로 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현재 전국 가맹점 동의를 받고 있으며 동가 원료되면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배달 인력난과 배달 서비스 운송비용의 상승이 가맹점 운영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국민 간식’으로 대표되는 치킨에 이어 배달은 필수이자 당연히 무료로 제공받는 서비스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별도의 이용료를 내야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결국 방식은 다르지만 가맹점들은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이 인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날 동시에 또 다른 국민 간식인 피자업계도 가격을 올렸다.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 1위인 도미노 피자가 이날부터 피자 품목 가격을 라지(L) 사이즈의 경우 1000원, 미디엄(M) 사이즈의 경우 500원씩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역시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과 임대료 및 인건비 상승’이 원인이다.

이에 앞서 미스터피자와 피자헛 등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올해 들어 배달 최소금액 기준을 2000~3900원씩 인상하는 방식으로 조정에 나섰다.

먹거리뿐 아니라 여가생활의 가격도 올랐다.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극장 체인인 CJ CGV는 오는 11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한다.

주말 오전 10시 이후 2D 영화 한 편을 스탠더드(일반) 좌석에서 보려면 1만1000원을 내야 하고 프리미엄 좌석은 1만2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부터 식품·외식업계를 필두로 가격 인상이 계속돼왔다. 햄버거와 김밥, 설렁탕 등 패스트푸드와 외식부터 즉석밥, 냉동만두, 어묵, 요

구르트, 콜라, 생수에 이어 피자, 사탕까지 물가 전반이 오르는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앞으로도 가격 인상 흐름이 쉽사리 멈추기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장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이 배달료를 따로 받기로 한 만큼 다른 치킨 업체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격 인상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치킨업계는 그간 정부와 사회의 인식이 부정적인 탓에 누구도 가격 인상에 앞장서려 하지 않은 채 눈치만 보는 상황이 계속돼왔다. 그러나 이제 빗장이 풀린 만큼 앞다퉈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극장가 역시 업계 선두인 CGV가 관람료를 인상한 만큼 나머지 극장 체인들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가격 인상은 다른 분야로 도미노처럼 퍼져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업체들도 가격을 올리게 되지 않겠느냐며 ‘치킨업계의 경우 배달업 등이 생기기 전 가맹점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고객의 취향대로” 유통업계, 소비자 요구 반영 참여형 마케팅 활발

고객 관심 유도·신제품 아이디어 얻는 1석2조



최근 식품이나 외식업계에서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활용하는 고객 참여형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마케팅은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고객 입장이 반영된 신메뉴나 신제품 아이디어도 함께 얻을 수 있어 1석2조라는

측면에서 선호하는 분위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피자알볼로는 최근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신메뉴 ‘날개피자’를 출시했다.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손수 지은 피자 이름과 함께 메뉴와 연계된 캠페인까지 제안한 한 고객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메뉴다.

삼양식품은 고객의 레시피를 차안한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고객 참여형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불닭볶음면과 짜장라면을 섞어 먹는 레시피가 인기를 끌자 이를 반영해 짜장과 불닭소스의 최적 배합비율을 찾아 ‘불닭볶음면’의

짜장 버전인 ‘짜장불닭볶음면’을 출시했다.

해태제과는 만두의 모양과 맛을 담아낸 3D 입체과자 ‘화나신나’를 출시하면서 제품명을 고객이 정하게 하는 고객 참여형 마케팅을 시도하기도 했다.

화나신나는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브랜드명을 선보인 이후 SNS를 통해 제품명 선정 이벤트를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페이스북에서는 36만명이 참여하고 인스타그램에는 댓글이 3000건 이상 달리는 관심 속에 고객이 선택한 브랜드가 탄생했다.

뉴스1

## 연금저축 가입자 560만명...월평균 수령액 25만원 그쳐

### 보험, 94조9000억 전체 적립금 대부분(74.1%) 차지

지난해말 기준 연금저축 가입자가 56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월평균 수령액은 25만원 수준으로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적립금은 128조 1000억원(계약수 699만건)으로 전년 118조원 대비 8.6% 증가했다.

보험은 94조9000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74.1%)을 차지했으며 신약 16조8000억원(13.2%), 펀드 12조2000억원(9.5%)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신약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펀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가입자는 총 560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

총 납입액은 1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4987억원) 감소했다. 계약당 납입 금액은 225만원으로 전년 대비 0.9%(2만원) 증가했다.

연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 이하 납입계약이 대부분(90.2%)을 차지했으며 400만원 초과 납입계약은 9.8%에 불과했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2조1000억원(71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29.8%(4892억원)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연간 299만원(월평균 25만원)으로 전년(307만원·월평균 26만원) 대비 8만원(2.6%) 감소했다.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 및 200만~500만원인 계약이 각각

52.3%, 28.9%에 해당하는 등 500만원 이하가 대부분(81.2%)을 차지하는 반면 1200만원 초과 계약은 2.4%에 그쳤다.

수령형태는 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6.0%를 차지했으며 종신형(32.4%), 확정금액형(1.4%), 기타(0.2%) 등의 순이었다.

확정기간형 계약 중 연금개시 계약의 대부분(90.9%)은 10년 이하를 선택했으며 연금수령 최소기간인 5년을 선택한 계약도 60.8%를 차지했다. 확정기간형을 선택한 연금의 평균 연금수령 기간은 6.8년으로 전년 대비 0.2년 증가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신계약 건수는 총 36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15.8% 감소했다. 보험 신계약 건수가 21만9000건, 60.3%로 전체 신계약 건수의 절반을 상회했다.

해지계약 건수는 총 32만6000건으로 전년 34만8000건 대비 4.6% 감소했다.

## 이건희 회장 자산 21조원

### 세계 부호순위 37→44위

### 세계 500대 부자에 한국인 8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산이 지난해 11월17일 222억 달러에서 지난 7일 200억(8일 매매기준을 기준 21조3800억원) 달러로 22억(2조 2300억원) 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세계 부호 순위 역시 37위에서 44위로 7단계 하락했다.

8일 블룸버그 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이번 회장 자산은 7일 현재 200억 달러로 감소했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부회장의 자산은 지난해 11월17일 78억 9000만 달러에서 지난 7일 80억 5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 부회장은 세계 부호 189위를 차지했다.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세계 부호 500위에 포함된 기업인은 8명이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95억 달러의 재산으로 149위를 나타냈고,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은 84억3000만 달러의 재산으로 176위를 나타냈다. 또 김정주 넥슨 창업자는 62억4000만 달러로 268위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53억 9000만 달러로 326위를 각각 나타냈다.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홀딩스 권혁민 회장은 45억5000만 달러로 420위를, SK그룹 최태원 회장(Anthony chey)은 44억3000만 달러로 442위를 각각 나타냈다.

한편 세계 부호 1위는 1180억 달러(126조1420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였다.

뉴스1



“짬면의 계절이 돌아왔다” 9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직원들이 오뚜기 진짜짬면을 소개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전 점포에서 ‘오뚜기 진짜짬면’을 선보인다. 진짜짬면은 짬면의 쫄깃쫄깃한 식감을 그대로 재현하고, 태양초 고추장을 사용해 맛이 매콤하면서도 새콤달콤한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1팩(4인)에 5,980원이다.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